기 고

류 시 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변화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 지게 된 배경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도로교통법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법률 홍보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 집중됐던 단속활동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횟수와 시간을 늘려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중에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러한 단속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다소 감소 추세에 들었다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금년 현재 190여건에 달하고 있어, 검찰에서도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에 대해 손쉽게 용서를 베풀어 왔다. 그에 따라 주폭,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된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청 차원에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시민개개인에게 있음을 상기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독일의 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만큼의 시민의식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교통에 대한 사소한 규범들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시민의식 속으로 내재될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작은 것들이 모여 이뤄지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음주 운전에 대한 계도를 장려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단속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사회의 토양이 되리라는 사실을 체화시키자.

우리의 실천이 모여 한국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 說

전남도민 문화향유 낙제점

전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3.1%로 17개시 · 도 중 최하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조성 예산증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니 걱정이 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63.1%라는 것은 전남 도민 100명 중 63명만이 영화나 공연 등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본다는 것인데, 지난 2016년 조사 때 52.7%보다는 11%정도 상승한 수치지만 전국 평균 81.5%보다 17.4% 낮은 수치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은 이유는 전남도의 특성상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이 많아 문화기반시설부족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구조학적 특성이 연관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에 특성에 맞는 정책이 부족한 것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은 장애인이 14만여 명이고, 노인인구 전체 인구대비 22%나 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내에 열린 관광지로 등록된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국가정원 등에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전남도의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무장애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올해 마쳤으며, 내년부터 표지판, 관광지진입로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이 낙제점이라니 심히 부끄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향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이처럼 수치스런 결과를 다시는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다가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난방과 취사연료가 사용되며, 사용량 또한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아파트 이외의 주거시설은 소방시설의 사각지대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주택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주택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만큼 효과도 크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최초 발견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신속한 화재인지와 대피,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진화 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윤석경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가을은 추수 계절이기에 농촌에서는 추수 준비로 분주해지는데 이때 우려되는 것이 농기계 안전사고이다.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피로감을 잠시나마 떨쳐내려고 하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농업기계 사용전, 후 반드시 점검할 것,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끌 것. 겨우내 장기보관 했던 농기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 후 장비점검을 세밀히 하는 것이다.

둘째, 도로주행시 등화장치 장착 및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농기계는 반드시 중앙선을 기준으로 맨 우측에서 주행하여야 한다. 만약 1차로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배상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탈 것이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농기계는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속도는느리지만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면 농기계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진민호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인광 일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